

# 서울정책포커스

2007. 9. 3 제41호

##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나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목 차 >

요약

1.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
2. 장르별 문화시설 분포현황
3. 최근 경향과 추세
4. 향후 정책방향

## 요 약

최근 많은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2007년 현재 문화시설(문화공간) 총수는 1,227개로 2002년에 비해 61.8% 증가하였다. 특히 공연장의 경우 무려 150%가 늘었다. 도서관 또한 85%가 늘었고, 미술관도 64%가 늘어 서울의 문화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시설이 이렇게 급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예술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시장은 이제 성장기에 이르렀다. 또한 미술품 경매시장은 과열 논란이 일 정도다. 그러다 보니 여러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문화시설 총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문화접근성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서울시가 그간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자치구 1문화시설을 넘어 서울시는 그간 기초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시설을 확충해 왔다. 이제는 시설확충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현장에서조차 나올 정도다.

문화시설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추세 또한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이전에는 우선 기업들이 문화지원차원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했다면, 이젠 시장개입과 투자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LG그룹을 비롯하여 각종 기업들이 문화시설 건립에 투자하고 있다. 롯데는 <사롯데극장>을 건립했고, 삼성은 <리움>으로 화답했다. 그 결과 많은 시설들이 대형화·상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영화시장과 서점은 대형 체인망이 지배한 지 오래다. 2002년에 86개소에 달하던 영화관 수는 70개로 줄었으나 스크린 수는 270개에서 422개로 크게 늘었다. 공연장, 미술관, 서점, 영화관 같은 문화시장이 기업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도. 전문화·전용화 추세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현상이다. '난타'를 중심으로 PCM극장이 생기더니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인기를 끈 뮤지컬 '점프'가 전용공연장을 열었다. 이어 'B-Boy' 전용극장, 힙합극장, DJ극장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영화에서 또한 예술영화상영관에 이어 일반영화 전용관까지 생겼다. 문화의 전문화·다양화·매니아 시대로 우리 문화현장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밀집화 추세 또한 막을 수 없는 힘이다. 화방, 악기점, 미술관, 공연장 등 각 장르별로 시장요소가 밀집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지역만도 무려 18개 지역에 이른다. 밀집의 정도 또한 요소밀집단계를 넘어 네트워크 단계, 즉 클러스터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의 문화시설은 급속한 확충기를 넘어 내실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화·전용화·밀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외 중심의 정책, 접근성 제고 중심정책이 아닌 시장중심, 지역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

- 서울의 문화시설<sup>1)</sup> 총수는 821개임. 한 개의 문화시설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문화공간 수로 셀 경우 총수는 1,227개임.
- 가장 많은 시설수를 갖고 있는 것은 공연장으로 총 231개소이며, 화랑(270개), 박물관(109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가장 많은 공간수를 갖고 있는 것은 영화관으로 총 422개소임. 영화관의 경우 시설 수(70개)에 비해 공간 수(館數)가 많은 것이 특징임. 이는 대부분 영화관이 단관에서 멀티플렉스로 진화하였기 때문임.

<표 1> 서울 문화시설 총수

시설	총수	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구민회관 포함)
				박물관	미술관	화랑		
공간 수	1227	285	422	109	36	270	74	31
시설 수	821	231	70	109	36	270	74	31

- 2007년 현재 문화시설 총수는 2002년에 비해 61.8% 증가하였음.
- 문화공간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연장은 15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도서관(85%), 미술관(64%)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 이처럼 문화시설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서울 문화(예술)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서울시의 꾸준한 투자 때문임.
- 2000년대에 들어와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시장과 미술품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음.

1) 본 고에서 말하는 문화시설 범위는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화랑, 영화관, 도서관, 문예회관으로 제한됨.

<표 2> 2002/2007 문화시설 수 비교

시설	총수	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			도서관	문예회관 (구민회관 포함)
				박물관	미술관	화랑		
2007	1227	285	422	109	36	270	74	31
2002	758	114	270	64	22	223	40	25
증가율(%)	61.8	150.0	56.3	59.4	63.6	21.1	85.0	24.0

※ 2002년 통계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 문화자원분포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참고

- 2002~2007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예술시장에 뛰어들며 문화시설 확충을 주도하는 한편, 서울시 또한 각 지역에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시설 확충에 주력해 왔음.

## 2. 장르별 문화시설 분포현황

### 1) 종합예술시설(Arts Complex)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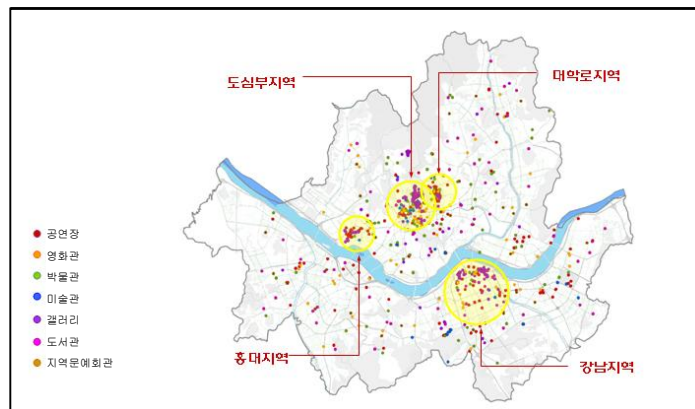
- 공연장과 전시장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극단이나 악단 등 산하단체를 갖고 있거나 주변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시설을 종합예술시설(Arts Complex)로 간주할 경우 서울 내 예술 콤플렉스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및 미술관 등 4개소임.
- 각 시설은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구성(국립극장 제외)되어 있으며, 산하 단체(아르코 제외)를 지니고 있고, 주변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세종문화회관 제외)이 특징임.

<표 3>서울 예술컴플렉스 현황

명칭	시설구성	소속단체	주변지역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자유소극장, 토월극장) 음악당(콘서트홀, 리사이트홀) 한가람 미술관,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악기제작소 및 상가(수입악기 및 고급악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1960년대 남산 이전 명동시대 시 주변 지역에 공연장 밀집(명동시대)
아르코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아르코미술관		대학로 문화지구
세종문화회관	공연시설 - 대극장, 소극장, 체임버 홀 전시시설 - 미술관	국악교향악단,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오페라단, 뮤지컬단, 극단	1970년대 주변 지역 내 다수 공연장 입지(세종로시대)

○ 예술컴플렉스 위치를 기본 축으로 문화시설이 분포함.

- 세종문화회관 중심의 광화문/도심 축, 아르코예술회관과 국립극장을 연결하는 대학로 축, 예술의 전당이 있는 강남 지역이 주요한 문화예술 축이며. 여기에 홍대지역이 가미되어 4개의 핵심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1] 서울 문화예술시설의 기본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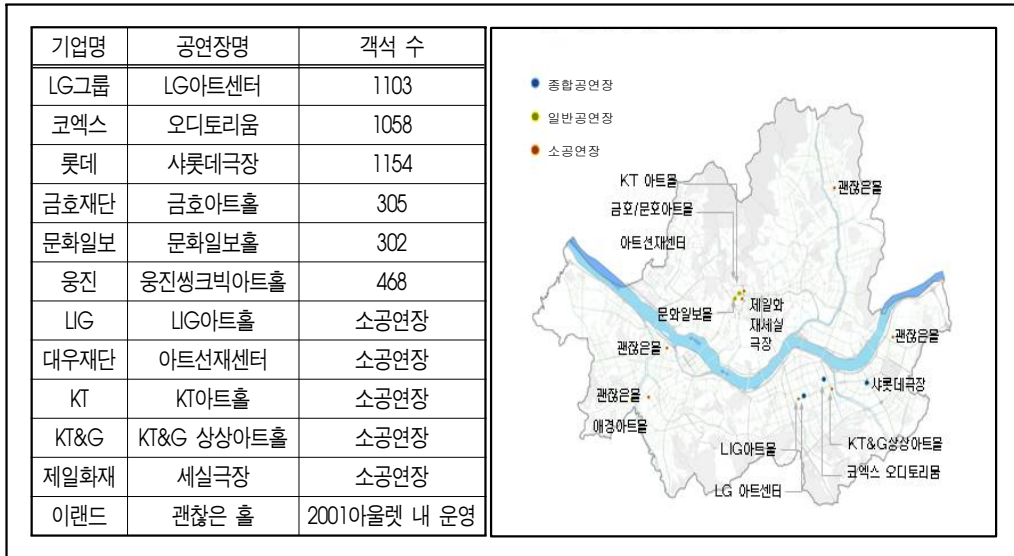
## 2) 공연시설 분포현황

- 2007년 서울의 공연장 총수는 285개로 2002년에 비해 150% 이상 늘어났음.
- 대부분 공연장이 소공연장임. 소공연장 총수는 150개로 전체 공연장의 52.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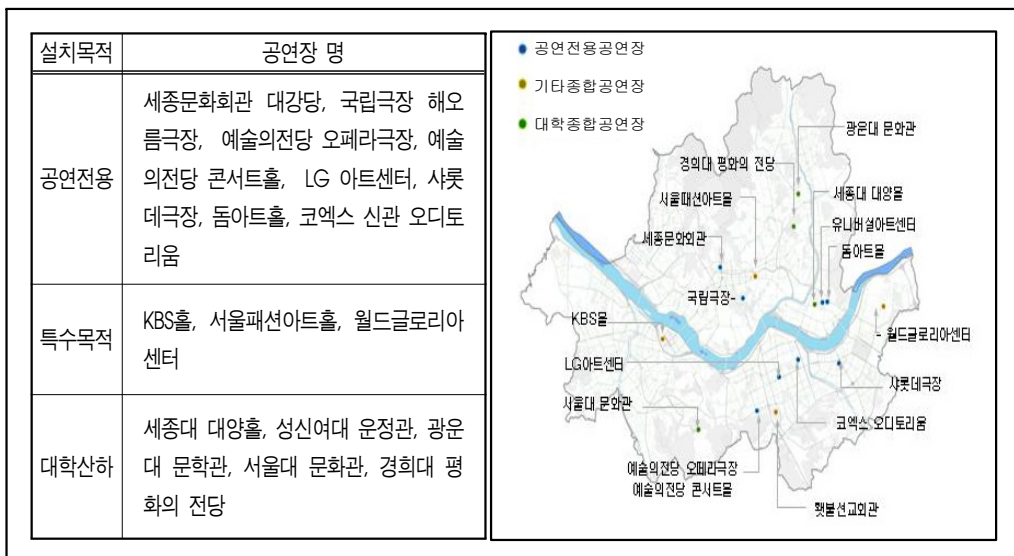
<표 4> 서울시 공연장 총수

	공연장 총수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야외	기타
		합	공공	민간	합	공공	민간	합	공공	민간		
2002년	131	9	5	4	37	19	18	70	13	57	-	-
2007년	285	18	6	12	81	39	42	150	22	128	9	27

- 최근 들어 공연장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뮤지컬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한 한편, 대학로를 중심으로 소공연장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 LG그룹에서 <LG아트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코엑스오라토orium>(COEX), <샤롯데극장>(롯데), <LIG 아트홀>(LIG), <KT&G상상아트홀>(KT&G), <관악은홀>(이랜드) 등을 건립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임.
-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소공연장은 2004년 48개소에서 2007년에는 96개소로 증가하였음. 대학로는 현재 대규모 공연타운을 형성하고 있음.
- 공연장의 전반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연장은 8개소에 불과함.
- 총 종합공연장 수는 16개소이나 이 중 8곳은 특수 목적으로 건립된 공연장이거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연장임.
- 1천 석 이상 규모의 대형공연장(종합공연장)은 8개소에 불과함.



[그림 2] 기업공연장 분포현황



[그림 3] 대공연장(종합공연장) 분포현황

○ 대형공연장 부족으로 많은 단체에서 비상설 공연장을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총 11개의 시설이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대중음악 공연이나 대규모 뮤지컬 공연, 초청 내한 공연 등이 이 임시 공연장을 통해 공연되는 상태임.

<표 5> 주요 비상설공연장 현황

구분	명칭	위치	객석	주요 프로그램 (공연자/전시품)	운영주체
강남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두베홀	논현동 248-7	1,000	디너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코엑스 컨벤션홀	삼성동 159 코엑스 3층	7,000	노라존스 내한공연, 비지스 내한공연, 뮤지컬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파이어 오브 라틴, 윤도현, 인순희 콘서트 등	COEX
송파	잠실종합운동장 광장 내 빅탑	잠실1동 10		태양의 서커스 쿼담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방이동 108-3	3,390	문화사랑페스티벌, 가루아가루아, 넬, 에픽아이,클래지콰이, 크리잉넛, 테이 콘서트 등	한국체육 산업개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방이동 108-2	1,500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내한공연, 스팅, 케너지 콘서트, 러시아 볼쇼이동물서커스, 동방신기, ss501, 비, 세븐콘서트	한국체육 산업개발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방이동 108-2	1,000		한국체육 산업개발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방이동 108-2	6,890	에이브릴라빈 내한공연, Gack Live Tour, 버드락콘서트, 이승환, 싸이, 김장훈, 상하이 아트서커스 등	한국체육 산업개발
용산	하얏트 리젠시움	한남동 747-7	2,000	윤호간의 피아노와 이빨, 어버이날 특별 런치 & 엔 디너 콘서트	하얏트 호텔
중구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남대문로 5가 395번지	1,000	최유나 별난 효 런치 & 디너 콘서트	힐튼호텔
종로	둘로스아노게온 소극장	관수동 112	-	팬미팅, 소규모음악회	둘로스호텔
마포	상암 월드컵경기장	상암동	66,806	우리스타 빅콘서트- 그룹시온드창백전 등	서울시설공단

### 3) 전시시설 분포현황

#### ○ 미술관

- 2007년에 서울지역 내 분포하는 미술관 총수는 36개로 2002년에 비해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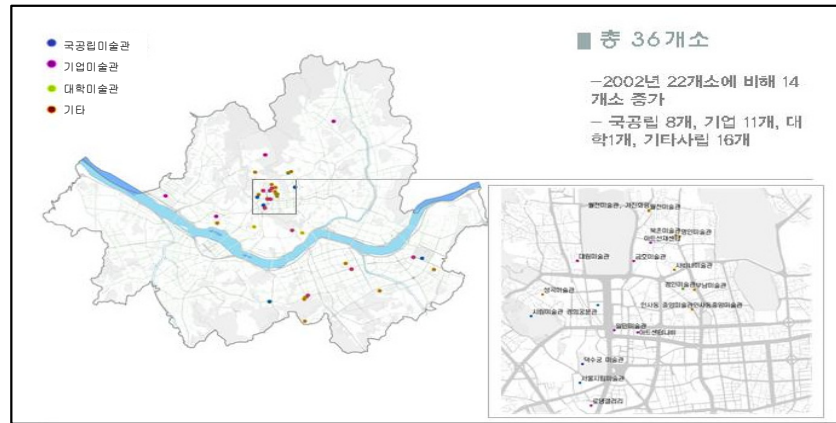
소 이상 증가하였음.

- 국공립미술관 8개, 기업미술관 11개, 대학미술관 1개, 기타 사립미술관 16개 소로 최근 기업들의 미술관 설립이 늘고 있음.
- 최근 기업이 건립한 대표적 미술관은 <삼성 리움>, <한미사진미술관>이며, 미술관 설립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미술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모색하는 중임.

<표 6> 주요 기업미술관 현황

명칭	위치	운영주체	설립일	소장품	비고
금호 미술관	사간동 78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1996	유리판화 등 326점	- 기획전시 - 금호창작스튜디오 운영
성곡 미술관	신문로 2가 1-101	성곡미술문화재단 (쌍용그룹)	1995.11	현대미술등 112점	기획전시
아트센터 나비	서린동 99	(주)SK텔레콤	1992.11	회화류 150	미디어아트 기획전시
일민 미술관	세종로 139	일민문화재단 (동아일보)	1996.12	유화,도자기등 416점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대림 미술관	통의동 35-1	대림문화재단 (대림산업)	1996.11	회화 등 158점	소장자료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로댕 갤러리	태평로 2가 150	삼성문화재단	1999. 5		상설: 로댕-갈레의 시민 12번째 에디션, 지옥의문 7번째 에디션
삼성 미술관리움	한남동 747-18	삼성문화재단	2004.12	금속,도제 등 160점	상설: 청자, 분청사기, 백자, 고서화, 불교미술, 금속공예 외 기획전시
아트 선재센터	소격동 144-2	대우재단	1998	판화 등 113점	경주에 있는 선재미술관의 분관
포스코 미술관	대치4동 892	(주)포스코	1998. 2	서양화95, 동양화 8, 조각 13 총 116점	기획전시
한미사진 미술관	방이동 45	한미문화예술재단 (한미약품)	2003.11	국내외사진 등 380점	사진전문미술관(국내최초), 기획전시 중심
한원 미술관	서초동 1449-12	한원그룹	1993. 5	회화류등 132점	풍경화전문 미술관 기획전시(서양화, 한국화, 조각, 도자기)

- 주요 미술관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개인미술관은 평창동 등에 위치해 있으며 기업은 도심과 강남에 집중적으로 건립하는 중임.



[그림 4] 광화문 지역 미술관 밀집현황



[그림 5] 기업미술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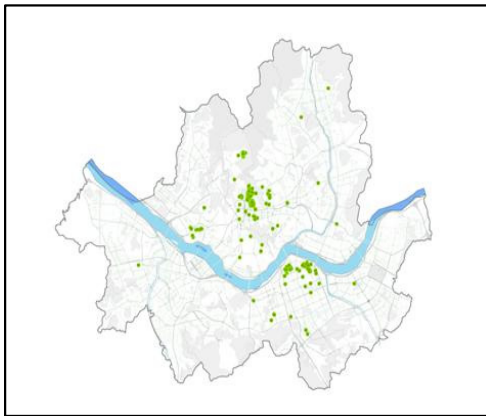


[그림 6] 개인미술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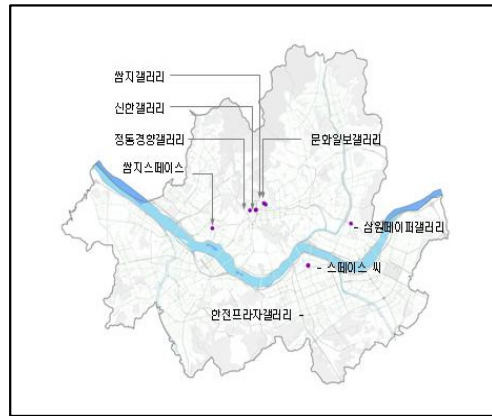
○ 화랑

- 서울에 총 270여개의 화랑이 분포하고 있음. 대부분 도심과 강남(청담동) 지역에 위치하며, 일부 화랑은 홍대에 위치함.
- 화랑 또한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 추세임. <문화일보갤러리>(문화일보), 정동경향갤러리(경향신문), 예가죽갤러리(목동예치과병원), 신한갤러리(신한

은행), 한전프라자갤러리(한국전력), 일주아트센터(흥국생명), EBS스페이스(EBS), 스페이스 씨(코리아나화장품), 알파갤러리(알파문구) 등 많은 기업들이 문화지원 측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쌈지, 삼원페이퍼 등은 기업 홍보차원에서 각각 <갤러리 쌈지> 및 <삼원페이퍼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7] 서울지역 갤러리 분포현황



[그림 8] 기업갤러리 분포현황

- 미술품 시장의 활황에 따라 총 7개소의 미술품 경매소가 운영되고 있음. <서울옥션>이 강남점을 오픈하여 3개소의 경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케이옥션>과 <포탈아트> 등이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임. 온라인 경매시장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 서울의 미술품 경매시장은 당분간 강세를 띠 전망임.



[그림 9] 기업갤러리 분포현황



[그림 10] 경매소 분포현황

○ 박물관

- 박물관(기념관 및 전시관 포함)의 총수는 109개로서 박물관이 95개소이며, 기념관 및 전시관은 14개소임.
- 이 중 종합박물관이 21개소이며, 예술박물관이 18개소, 역사박물관이 32개소, 교육박물관이 10개소, 자연사 박물관이 4개소, 과학기술박물관이 24개소임.

<표 7> 전시주제 별 박물관 수

총수	종합 박물관	인문계박물관			자연계박물관	
		예술계 (음악/공예/회화 /조각/건축/도자 /가구/서예 등)	역사 (문화사/패총/ 고문서/기념관/ 민속마을/향토 유적지/의상/도 서(기록보관소)	교육 (어린이/학교/ 교육/산업교육)	자연사 (천체/지구지/ 광물/인류/민족 /동물/식물/해 양/화석/환경)	과학기술 (산업/기술/과 학/농업/산업/ 체신/정보/통신 /교통)
109	21	18	32	10	4	24

\* 분류기준: 각 분야를 2개 이상 포함하면 종합박물관으로 보아 국립중앙박물관, 각 대학박물관, 경기여고의 경운박물관을 종합으로 분류함.

-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박물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특수분야 박물관, 사건관련 기념관, 인물관련 기념관 등이 있음.
  - 특수분야: 국립서울과학관, 체신기념관,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 관세박물관, 외교박물관, 경찰박물관, 조세박물관
  - 사건관련: 올림픽기념관, 전쟁기념관
  - 인물관련: 안창호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윤봉길 기념관, 백범 기념관, 최순우 기념관



[그림 11] 국립박물관(문광부산하)



[그림 12] 국립박물관(기타부처)

- 서울시 또한 시 역사 보전 및 도시홍보 차원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문화관, 몽촌역사관, 서울교육사료관, 허준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박물관,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13] 공립박물관 분포현황

- 그러나 클러스터 지역에 형성된 박물관은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뿐임. 거의 모든 시설이 점적인 형태로 지역의 맥락과 관계없이 기업의 역사나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개인적 관심에 의해 건립·운영되고 있는 형태임. 지역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함.
- 최근 뚜렷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박물관과 개인박물관임. 전시의

소재도 다양해지는 한편 전시의 내용 또한 알차지고 있음.

<표 8> 기업 및 개인 박물관 현황

	분야	박물관 명
기업	과학	한국통신박물관(한국통신), 전기박물관(한국전력), 계성조히박물관(계성그룹), 출판박물관(삼성출판), 건축박물관(울트라건축), 김치박물관(풀무원)
	역사	민속박물관(호텔롯데), 화장품박물관(코리아나), 은행사박물관(우리은행), 금융사박물관(신한은행)
	교육	어린이박물관(삼성), 신문박물관(동아일보)
	예술	서울디자인박물관(한샘)
	예술	목인박물관, 부영이미술평예박물관, 세계장신구박물관, 불교미술박물관, 화장박물관, 한상수지수박물관, 종이미술박물관, 호림박물관, 초전섬유 쉼트박물관, 한국사진박물관, 관문사성보박물관
개인 기타	역사	지구촌민속박물관, 가회민화박물관, 떡부엌살림관, 북촌생활사박물관, 쇠대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평강성서유물관, 성바오르박물관, 용기민속박물관, 실크로드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과학	로봇박물관, 한국잡지박물관, 카메라박물관, 생명과학체험관, 농업박물관, 수도박물관
	인류	티벳박물관
	교육	토이키노박물관, 별난물건박물관

#### 4) 영화관 및 서점 분포현황

○ 영화관 수는 2002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스크린 수는 오히려 56.3% 증가한 상태임. 이는 멀티플렉스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서울의 영화시장은 전반적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임.

- 영화관 수: 2002년 86개소에서 2007년 현재 70개소로 16개소 감소함.
- 스크린 수: 2002년 270개소에서 2007년 현재 422개소로 152개소 증가함.
- 서울을 지배하는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망(5개): CGV, 메가박스, 씨너스,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표 9> 대형 체인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분포현황

체인명	체인구성	비고
CGV	강남, 강동, 광진, 강서, 구로, 명동, 목동, 미아, 불광, 상암, 압구정, 용산(개관예정: 문래, 왕십리 등)	인디영화상영관, 골드클래스관, 아이맥스관 등 다른 멀티플렉스와 차별화
메가박스	코엑스, 목동, 신촌 등	ZAMZone, 러브관(목동점), M관(목동점, 신촌점) 등 특색있는 시설운영
씨너스	명동, 서울대, 이수, 센트럴, 판타지움, 씨너스G, EOE4 등 7개 점	
프리머스	노원, 독산, 신림, 연신내, 영등포, 장안 등 6개점	
롯데씨네마	중구, 광진, 노원, 영등포 등 4개점	안락의자를 갖춘 샷데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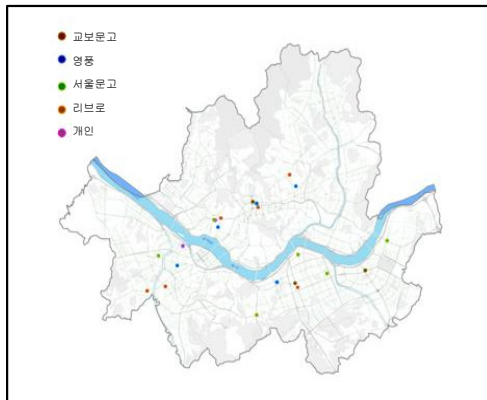
※ 전반적 흐름: 메인시장(강남, 도심)을 놓고 CGV와 메가박스가 경쟁하고 있으며, 주변부 시장에서는 씨너스와 프리머스가 경합하는 중임.

- 서점 또한 최근 대형화·체인화 추세로 그 수가 감소하는 반면, 대형 매장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음.
  - 서점 총수는 785개소임.
  - 관악구, 마포구, 종로구 등에 많은 서점이 분포해 있음. 특히 관악구에는 도매서점과 고서서점이, 종로구에는 도매점이, 서초구·강북구·도봉구 등에는 어린이 서점이 많은 것이 특징임.
  - 대형 유통시장은 5개 체인망(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반디 앤 루니스>, (주)리브로<북스 리브로>, 흥익문고)이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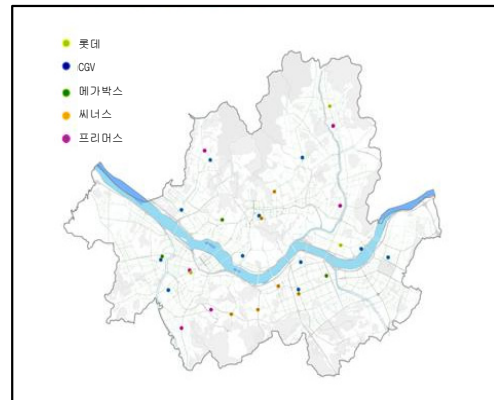
<표 10> 대형 체인형 서점 분포현황

체인명	구성	비고
교보문고	광화문본점, 강남점, 잠실점 등 3개 매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인망
영풍문고	종로본점, 강남점, 공향점, 고대점, 영등포점 등 5개 매장	
서울문고	코엑스점, 목동점, 압구정점, 천호점, 신촌점, 미아점, 종로점, 사당점 등 8개 매장	<반디앤루니스>의 미국브랜드
(주)리브로	구로점, 을지점, 고척점, 강남점, 신촌점, 돈암점 6개점	<북스 리브로>
홍익문고	신촌본점, 당산점	개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체인망

※ 전반적 흐름: 도심(종로/광화문), 강남, 신촌, 구로/목동, 돈암/고대 등 각 권역별 시장을 놓고 크게 경쟁하는 중임.



[그림 14] 대형 체인형 서점 분포현황



[그림 15] 체인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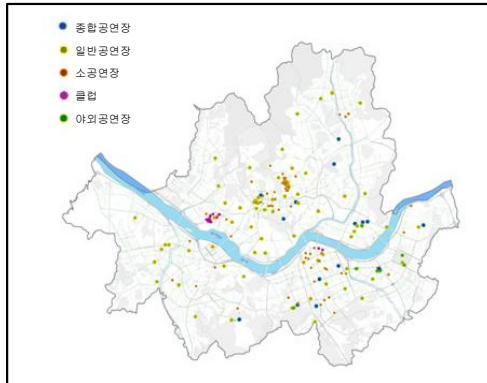
### 3. 최근 경향과 추세

#### ○ 도심과 강남을 중심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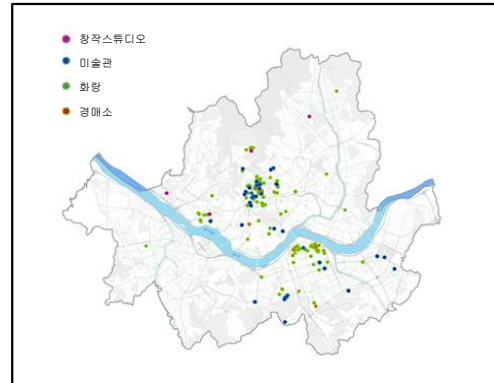
- 전반적 예술시장은 도심과 강남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여기에 홍대지역이 하나의 밀집지역으로 가세하는 추세임.
- 도심과 강남지역 내에는 공연장, 미술관, 화랑 등 모든 장르의 예술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홍대지역에는 클럽, 아틀리에 등을 기반으로 일부 예술자원이 밀집하는 상태임.



[그림 16] 공연장 분포현황(전체)



[그림 17] 시각예술자원 분포현황

#### ○ 기업의 참여 확대

- 최근 예술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뚜렷한 추세는 기업들의 참여임. 공연장, 미술관, 화랑, 박물관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전 분야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 상업화·대형화 추세

- 영화관, 서점을 중심으로 대형화·체인화 추세가 나타남.
- 최근 기업들의 참여로 공연장과 전시장(미술관, 박물관) 또한 대형화·자본화 되는 추세임. 삼성의 <리움 미술관>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단지 홍보 차원이 아닌 상업적 차원에서 예술시장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음.
- 다른 한편 중소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공연 및 전시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상업적 유형의 공연장 및 전시장도 생겨나고 있음.
  - 상업적 극장: 샤롯데극장, PMC대학로, 자유극장, 개그클럽 등
  - 멀티플렉스형 공연장: 대학로 예술마당, 두레홀, 쇼틱씨어터, 인켈아트홀 등

<표 11> 기업관련 문화시설

분야	시설명	관련기업
박물관	신문박물관 화장박물관 김치박물관 한국금융사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동아일보 코리아나 풀무원 신한은행 삼성그룹(삼성문화재단)
공연장	LG 아트센터 LIG아트홀 코엑스오디토리움 샤롯데극장 금호/문호아트홀 문화일보홀 호암아트홀 KT&G 상상아트홀	LG 그룹(연암문화재단) LIG 코엑스 호텔롯데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문화일보 중앙일보(삼성그룹) KT&G
전시장	아트선재센터 금호미술관 로댕갤러리, 리움 일민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대우재단 금호그룹 삼성(문화재단) 동아일보 SK텔레콤

<표 12> 대형화·상업화 추세 현황

분야	체인명	체인점
영화체인망	CJ CGV	광진 및 강남 등 14개점 (이 중 2개점은 2007년 하반기 개관 예정. 이외 고급형 단관도 있음)
	씨너스	센트럴(고속터미널) 및 판타지움(대학로) 등 7개점
	프리머스	노원, 연신내 등 6개점
	롯데 씨네마 메가박스	중구, 광진, 영등포, 노원 4개점 코엑스, 신촌, 목동 3개점
서점체인망	교보문고	광화문 외 2개점
	영풍문고	종로점 외 4개점
	반디엔루니스	코엑스점 외 7개점
	북스리브로	을지점 외 5개점
상업장르 전용공연장	뮤지컬	샤롯데극장, PMC대학로 자유극장,
	개그	갈갈이홀, 박승대홀(1,2관), 컬투홀(1,2관), SH틴틴홀, 키득키득아트홀, 흥대 개그스테이션홀
	비보이/난타	JH홀, 비보이코리아전용관, 우림청담시어터, 정동A&C
다중공연장 및 체인형 공연장	대학로 예술마당	1,2,3,4관
	대학로 두레홀	1,2,3관
	쇼텍시어터	1,2관
	인켈아트홀	1,2관

○ 전문화·전용화 추세

- 최근 경쟁력 있는 콘텐츠(작품)가 확보되면서 각 공연장 등이 전문화·전용화되고 있음.
- 여기에 예술영화 전용관, 일본영화 전용관, 애니메이션 전용관 등 각 장르별로 특성화된 전용관 등장이 또 다른 추세임.



[그림 18] 전용공연장 분포현황



[그림 19] 전용영화관 분포현황

○ 예술자원 밀집화 및 클러스터 형성

- 도시 형성이 안정화되고 예술이 점차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예술 시장 및 밀집지역이 형성됨.
- 서울에는 현재 총 18개소의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중임. 특히 화방, 악기상가, 고미술, 고가구 등이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예 및 공연기획사, 제작사 등도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는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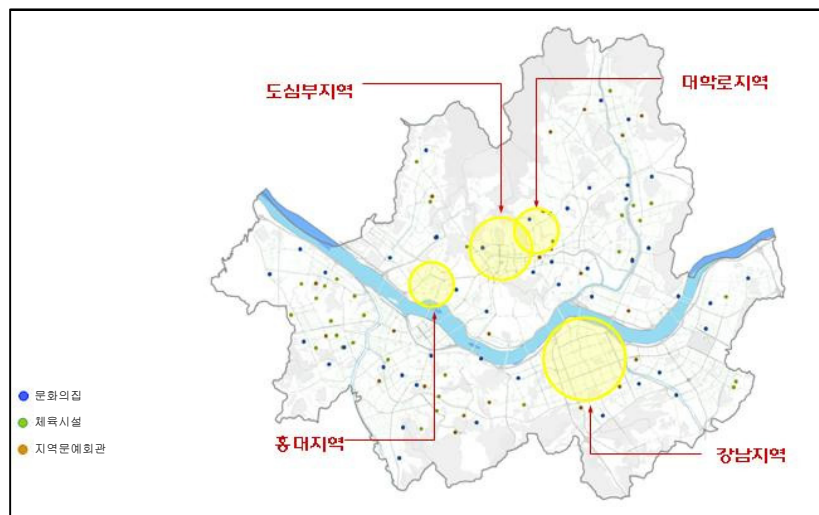
<표 13> 서울지역 주요 예술자원 밀집지역 현황

지역	범위	밀집현황	도시계획	비고
대학로	종로구 동숭동 1-111 일대	공연장 96개소 공연관련 각 대학 학과 및 예술단체	문화지구 지정	대학로문화축제 문화지구 지정이후 급격성장
인사동	종로구 관훈동 197-4일대	화랑120여개, 골동품·표구점·필방 입주	문화지구 지정	인사동전통문화축제
삼청동길	종로구 소격동 43번지 일대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개인미술관 및 화랑 73개소 입지, 소형박물관 10개소 위치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일부)	정독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아트 선재센터 등 입지 최근 밀집지역으로 성장 중
평창동	종로구 평창동 일대	화랑12개, 미술관2개, 문학관, 도서관, 공매소, 아뜰리에 각 1개소 분포		토탈미술관, 서울옥션 위치
광화문	세종로 81-3일대	각 기업미술관 위치-대림미술관, 문화일보갤러리, 금호아트갤러리, 세종갤러리, 조흥갤러리, 일민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롯데화랑 등	KT홀만 지구단위계획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위치
정동	중구 정동	시립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정동극장, 정동A&C 위치		근대역사문화유산 위치
청담동	코엑스~갤러리아 백화점	화랑30여개 위치		패션부티크샵, 자동차 전시장 등 명품상가 위치
신사동	신사역~영동대교	다수의 연예기획사 및 공연기획사 위치		
가로수길	강남구 신사동 532-8 일대	화랑13개, 미술학원, 표구상 3~4개, 엔틱샵, 디자인업체, 디자인용품점 등 디자인관련 업종 밀집	지구단위계획 (일부)	특색있는 카페 다수 입주 최근 성장하는 중
삼각지	용산구 한강로 1가 주변	화실공방7개, 화방화랑34개, 표구화구15개 등 화방관련 상가 밀집	지구단위계획	열린화랑, 가갤러리, 터화랑 등 대구탕, 곱창, 보신탕 등 한식당 분포
낙원상가	낙원상가	악기상가 230여개 업체 분포	지구단위계획	허리우드극장(서울필름포럼)
예술의 전당 주변	서초동 700번지 주변	악기제작소 및 판매상가 70여개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 판매		예술의 전당, 아리랑TV, 한원미술관, DSHall 등 예술시설 분포 외제 승용차 매장 확산
홍대지역	상수동 72-1번지 주변	미술학원 100개, 표구화방 20여개, 출판사 60여개, 아뜰리에50여개, 클럽43개 분포	문화지구 지정 추진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수 축제 개최 서울 최대 창의지구
이태원		대형엔틱샵 8개	관광특구	이슬람사원, 해밀턴호텔, 제일기획 등
답십리	동대문구 답십리4동	골동품상가 147개소 분포	뉴타운지정 (일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영화관 및 제작사 분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충무아트홀, 충무로영상센터 입지
강남역	강남역~영동시장	신흥제작사 및 배급사 입지		
상암	상암 DMC 지역	다수의 방송시설 입지		

## 4. 향후 정책방향

### ○ 소외극복형 정책에서 인프라를 강화하는 시장기반형 정책으로 전환

- 지금까지 서울시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 내에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하여 왔음. 이에 따라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 지역에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립하였으며, 도심권과 강남권, 홍대 지역 등에는 공공용도의 문화시설을 건립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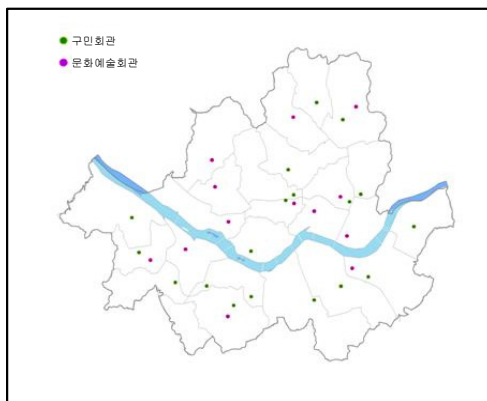
[그림 20] 밀집지역 외 공공문화시설 확충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좋아진 상태임. 그러나 이제부터 문화의 생산력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시설 및 배후시설 건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현재 대학로에 연습실을 건립·운영하는 한편, 연극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중임. 다른 한편 홍대지역에 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매개공간>이 들어서는 한편, KT&G가 <문화플래닛 상상마당>을 건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이와 같이 문화예술 시장 기반 형성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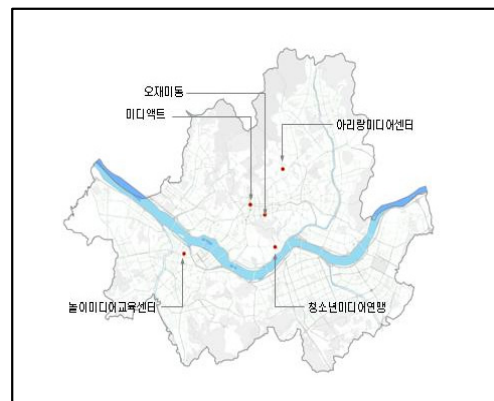
역 마케팅 거점 역할을 할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함.

○ 공연장 등 발표중심형 시설에서 창작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센터 중심으로 시설 확충

- 공연장의 수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이며, 더불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앞으로도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확장될 추세임. 서울시가 정책적 차원에서 건립해야 할 공연시설은 1천석 이상의 대형 종합공연시설(Arts Hall)임. 최소한 오페라가 가능할 정도의 내부시설과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지닌 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건립할 시설은 발표시설이 아니라 창작을 기반으로 교육을 결합한 주민(시민)친화형 문화시설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문화예술회관을 지역 기반 문화예술 교육시설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다른 한편, 미디어센터 등과 같이 현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시설 보급이 필요함. 특히 <미디어센터>, <다원예술공간> 등 주민 및 청소년들과 관련이 깊은 시설 건립이 필요함.



[그림 21]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분포현황



[그림 22] 미디어센터 분포현황

○ 역사를 살리는 근대문화 공간 적극 개발

- 서울시는 등록문화재를 활용해 홍난파 가옥 등 총 10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한편, 향후에도 6~7개소 이상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향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은 만큼,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등록문화재 지정 건수는 39개이고 향후 지정대상이 102개소임. 이 중 다수의 시설이 건조물인 만큼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밀집지역에 대한 보전 및 발전정책

- 서울 지역에는 18개소 이상 문화예술 자원이 밀집한 지역이 형성되고 있음. 단순한 업소밀집형에서 클러스터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편, 미학적 아우라를 형성하여 지역가치차원에서 서울을 마케팅할 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임.

- 이에 밀집지역을 보전하는 한편, 각 지역이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및 마케팅 시설을 입주시킬 필요가 있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구 지정 및 예술자원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화방박물관, 악기박물관 등 지역밀집 특성을 고려한 박물관이나 인프라 건립을 추진함.

나도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7  
kuber21@sdi.re.kr



